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심안과 삶

11+12
NOV + DEC
2021 vol.15



특집 난민, 나그네, 디아스포라

사람 사이 김중철 공익법센터 '어필' 설립자
청년, 시론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문화로 세상 보기 표류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ISSN 2671-8731

Contents

NOVEMBER + DECEMBER · 2021

시선

나그네 영접은 그리스도인의 임무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은둔자의 나라에서 이방인 현대의 나라로 | 신국원 04

특집

난민, 나그네, 디아스포라

아니 난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이일 06

회복된 세상에 난민은 없다 | 이상훈 08

한국에 오신 아프간 난민의 하나님 | 이호택 10

이방인과 친구로 더불어 살기 | 박진숙 12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은 | 김달성 14

파리제일장로교회 난민선교 사례 | 김요한 16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섬김 동역으로의 초대 | 지문선 18

재한 유학생 복음 사역의 필요성과 시급성 | 김병문 20

사람 사이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설립자 22

섬김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문준호 26



2021. 11+12월호 | 제15호(통권 230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 편견을 넘어 화해의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의 여정 | 신희원 28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 르영 티 튀짱 30

청년, 일터 이야기

-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위해 ‘첫 번째’로 살기를 | 왕린 32
복음 전도 : 재한 유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섬김 | 최위 34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 〈오징어 게임〉으로 본 ‘난민’, 구원의 길은? | 추태화 36

미술을 보다

- 표류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 서성록 38

책을 보다

-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 이명진 40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 오민용 42
청년들을 위한 프랑스식 기독교 세계관 교재 | 유경상 44

교회 路

수원하나교회, 시리아 난민 사역 소개

- 예기치 않은 시리아 난민 사역의 열매 | 고성준 46
소감문: 어머니의 날 | 이라임 47

온전한 지성

- 생명 돌봄은 지상명령이다 | 신국원 48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49

소식

- 독자한마디 50
사무국 소식 51
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3



나그네 영접은 그리스도인의 임무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은둔자의 나라’로 알려졌던 한국에 외국 노동자, 기술자, 유학생, 난민이 찾아오고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라는데 한국에는 이미 거의 7%나 되고, 국민 60%가 한국은 다문화 사회란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후진국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민 가는 나라에서 이민 오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충분히 자축할만하다.

그러나 한국인 대부분은 아직도 나그네들을 제대로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외국인들을 ‘우리’의 테두리 안으로 품는 것에 어색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외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기업인들이 없지 않고 정부는 난민 인정과 수용에 매우 인색하다. 상당히 넓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지형, 오래 계속된 관계 중심의 전통문화, 그리고 빈번했던 외세의 침략 등이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먹서먹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현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하루빨리 이런 주저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피차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이런 통합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위치에 있고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외국 문물과 빨리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 자체의 해외선교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피선교국 주민들과도 직·간접적으로 빈번히 접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이미 더 개방적이며 나그네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민족, 지역, 성, 피부색,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고생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신의 도성>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peregrini)란 사실을 특히 강조했고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도 기독교를 순례자(pilgrim)로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 상당수도 전 세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다. 800만 명에 가까운 한인이 186개국에 이민 갔거나 거주하고 있어, 체류국 수로는 중국인의 180개국보다 더 많다 한다. 탈북민들은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지만 역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나그네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대상은 고아, 과부, 객이었는데, 객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여 사는 이방인들이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보호해 줄 부모, 남편, 동족이 없는 약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이들의 기본 권리는 보호해 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나그네들이 쉽게 소외되고 외로우며 각종 음성적인 가해와 차별 대우를 쉽게 당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나그네들이 모인 교회만큼 이 땅의 나그네가 안식할 곳은 없지 않나 한다.

나그네는 고향에서 떠나므로 ‘뿌리가 뽑힌’(uprooted) 사람들이다. 그 뿌리에는 종교적인 전통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뿌리가 뽑힌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을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그가 이방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였다. 선교지로서 시골보다 도시에 전도가 쉬운 것도 뿌리가 뽑힌 시골 사람들이 도

시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전도만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전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교회의 당연한 임무다.

나그네들이 한국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해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비록 소득 격차가 심하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처럼 사회계층이 뚜렷하게 고착되어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요즘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것이 이어져서 소외계층으로 고착되는 것은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이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나그네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그네들의 조화로운 정착은 한국 교회의 도전이며 임무가 되었다. 부디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은둔자의 나라에서 이방인 환대의 나라로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에선 ‘난민과 나그네,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다룹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그 변화를 경축할 일이라 했습니다. 나그네 환대로 참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자인 그들이 소외계층으로 고착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일 변호사님은 <특집> 첫 글에서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갖기 위해 난민 이슈를 ‘내 것’으로 삼을 것을 주문합니다. 그들과 얼굴로 만나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훈 교수님은 최초로 한국민간단체 해외구호요원으로 파견되었던 분입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현장 사역 속에서 만난 희생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표현하기 힘든 짙은 슬픔”을 전합니다. ‘다름’을 차별하며 싸울 때 지옥문이 열리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난민이 없다고도 하시고요. ‘피난처’ 대표로 30년 가까이 섬겨온 이호택 변호사님은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파리의 김요한 목사님은 유학생 중심의 작은 교회에서 난민 사역을 통한 이슬람 선교의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평안감리교회 김달성 목사님은 우리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제약하는지를 현장 체험을 토대로 일깨워 줍니다. 사회적 기업 ‘에트랑제’의 박진숙 대표님은 콩고 난민 여성을 정착시키는 15년 사역 소개를 통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지문선 국제학생회 본부장님은 한국 유학생 섬김 사역의 경험을 통해 우정에 기초한 진정한 돌봄과 전도의 자세를 당부합니다. 김병문 교수님은 서울 대학교교회 국제예배 경험을 나눕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16만인 것은 5000년 역사상 대 사건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외선교의 큰 기회임을 역설합니다. 13개 대학으로 확장된 CICA 사역에도 관심을 요청합니다.

<사람 사이>의 김종철 변호사님은 대표적인 난민 사역자입니다. 용감한 선택을 한 난민들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가게 하려고 자원봉사로 시작한 일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1%인 것은 정서, 법, 제도적 차원에서 얼마나 인종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30%이고 독일은 40%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도 다르지 않은 것은 “성경을 잘 못 배운” 것이 이유라고 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섬김의 자리〉의 문준호 박사님은 저희 동역회 감사입니다. 늘 겸손히 실행위원으로 섬겨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세상 속에서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담담히 나누어 줍니다. 〈청년 시론〉에서 신회원 연구원은 자신이 몸소 경험한 인증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연구할 뿐 아니라 현장 경험을 통해 넘어선 경험을 나눕니다. 베트남 유학생 르영 티 튀 짱 자매는 한국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가장 복된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광염교회의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돌아가 선교 사역을 할 계획이라 합니다. 〈청년 일터 이야기〉에서 중국인 KAIST 연구원인 왕린 형제는 카이스트 국제교회에서의 믿기 시작해 기도 응답받은 체험을 나눕니다. 유학생이면서 성균관대 국제교회를 섬기는 최위 전도사님은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는 경험을 나눕니다.

추태화 교수님은 〈오징어 게임〉에 비친 정욕과 소욕에 빠진 이 시대 경제 난민들의 구원의 길을 풀이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쫓다 이용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주노동자 압둘 알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미술가들의 눈으로 난민을 보게 해줍니다. 사진작가 전해리, 거리 예술가 뱅크시,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 고려인 니콜라이 신의 작품을 통해 난민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이들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도 묻습니다.

〈책을 보다〉에선 이명진 소장님이 우리 학회 감사이신 류현모 교수님 부부가 〈기독교세계관 바로 세우기〉에서 제시한 시대를 직시하고 분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민용 박사님은 이병주 변호사님이 〈기독교와 법〉에서 법의 현장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 씨름해온 경험을 소개합니다. 유경상 대표님은 동역

회 실행위원장인 박동열 교수님이 이상민 박사님과 함께 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평합니다.

〈교회로〉에서는 수원 하나교회의 고성준 목사님이 시리아 내전 속에서 스스로 난민이 되어 사역을 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들을 돌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라임 자매는 어머니날 행사에서 난민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했던 행사의 감동을 전합니다.

이번 호의 여러 글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의식이 낮은 우리나라에 이토록 귀한 사역에 헌신해 온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집을 위해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새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진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에 2세기에 쓰여진 〈디에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죄수처럼 갇혀 살지만 세상을 보존하는 이들”이라고 했지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로마가 버린 약자들을 돌보았던 초대교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아니 난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 변호사)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의 일부,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일부가 한국으로 피난했다. 극소수의 예멘 난민들이 피난해온 당시 한국 사회, 특히 일부 교회 일각에서 수긍할 수 있는 '낯섦'의 정도를 넘어 난민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들어오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거나 한국이 이슬람화될 것이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들렸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강도 만난 자 앞에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설명하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이런 행동에 동참했던 것은 지금도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이번 피난에 대해서는 반응이 조금 다르다. 한국 정부가 정무적 고려로 ‘난민’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포상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도 그 이유다.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예멘과 달리 더 많이 시민들이 알았던 것, 탈레반의 억압 정도에 대한 시민들이 공감대가 넓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

다. 여전히 일부 난민혐오 취지의 표현들이 언론사 기사의 댓글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반응은 조금 다르다. 낯설지만 공감하고 우리의 공간을 열어 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금씩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제 난민혐오의 주장을 지적하는 걸 넘어, 다수가 택하고 있는 근본적 태도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완벽히 ‘소비자, 근로자’로서만 존재하는 개인으로 단절시켜가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암묵적으로 묻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형상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인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있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억압이 있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고 한다. 기후 위기는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에 나하고는 상관없고, 다만 오늘 내가 먹고 마실 자유는 제한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주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해도, 내가 가진 부동산

과 주식만 오른다면 쾌재를 부른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서 더욱 강화되어 사람들을 서로 개별화시키는 이와 같은 ‘단절’은 단지 사회적 현상만은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활동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이 ‘연결’된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다. 바로 “너하고, 교회하고 도대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소수자 집단과 사이를 가르는 것이다. 국적이 다르다면 차별이 당연하다고 한다. 경제 수준이 다르다고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별해야 한다고 한다. 종교가 다르면 적이라고 한다. 성별이 다르면 우월한 성과 그렇지 않은 성이 있다고 한다.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지. 네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질 수는 없잖아.”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초월하는 연결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연대’라고 표현된다. 국적, 인종, 나이, 성별을 가로질러 갑자기 ‘형제, 자매’가 된다. 역사와 시간을 가로질러 ‘공동체’라고 한다. 수많은 차이를 가로질러 ‘피조 세계’가 된다. ‘고통’ 속에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주여 언제까지니 이까”라고 탄원하는 ‘한 편’의 탄원 시가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은 사실 영원과 찰나 사이의 강을 가로질러 모든 ‘죄인 중의 죄수’와 한 몸 됨을 선택하신 무서운 사건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마 25:40)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다음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주님이 바로 교회가 낮설어하는 주리고, 갇히고, 가족이 찢어지고, 추방되는 난민의 얼굴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국을 찾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 인권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얼굴’로서 만나다 경험하는 것은, 이런 단절의 극복이다. ‘우리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가 된다. 시리아 전쟁,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통해 생겨난 난민들, 그리고 미라클 작

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서 다니고 있는 난민들이 ‘친구’의 이야기로 들린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것을 발견한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종, 종교, 국적이란 지표가 아닌, 지표가 견어진 별거벗은 인간으로서의 동등성과 연결성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그와 같은 지표로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존엄이 침해될 때, 사회의 구조와 인식이 이들을 압제할 때, 이들이 받는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여겨진다.

어쩌면 교회가 누군가의 ‘결’이 된다는 것, ‘집이 없는 자들의 집’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함께 고난받는 외양을 감히 함께 선택해보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언명은 결국 성육신으로 ‘모두의 고통’을 이미 체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마땅히 그 고통과 신음에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한국에 왔다. 200여 명에 이르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들, 주님은 그들의 얼굴로 한국 사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라며 고개 돌려 가던 길을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 변호사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후원으로 운영되는 NGO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상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으로 국내의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함께 모아 연대 활동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등을 돕고 있다.

회복된 세상에 난민은 없다

이상훈 (선교사, 르완다 PISS대학 교수)



1994년 내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사태 때문에 르완다는 한국민간단체들이 최초로 해외에 구호 요원을 파견했던 현장이다. 개인적으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KFHI) 구호팀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어 콩고(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당시 Zaire)에 파견되어 미디어에서만 보던 난민촌을 직접 가보게 되었다. 어스름한 저녁이면 운반 차량을 기다리며 거적에 말려 길가에 누어져 있던 시신들..., 화장실이 없어 바위 밑에 웅크리고 설사를 하고 있던 어린이들..., 추위를 이기느라 피운 모닥불의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프가니스탄과 우간다에서도 이윅와 상황은 다소 달랐지만 고향을 등진 사람들의 고단한 삶은 동일한 것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난민들은 ‘난민’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 흐릿한 눈빛에 멍하게 먼 산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사소한 것이라도 움켜잡으려

하고 또한 팔기도 하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눈에 띈다. 인근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말려서 파는 아이들도 있고, 배급받은 옥수수나 식용유를 인근 지역주민들과 필요한 생필품으로 바꿔오기도 한다. 자동차 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해주거나 대신 전화를 걸어주면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런 곳에서도 자국 화폐와 난민촌이 있는 나라의 화폐, 심지어 달러를 사고파는 환전상도 생겨난다. 난민들의 상행위는 자연발생적이며, 실제로 장기화되는 난민촌의 경우 UN과 NGO들이 시장터를 지어주거나 간단한 비즈니스 훈련을 시켜주며 이를 장려하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적십자 구호 요원은 파키스탄에 생긴 난민촌에서 일하면서 한 가족이 두 개의 텐트를 치고 가족이 나뉘어 거주하면서 UN이나 NGO 사람들을 속여서 두 가족 분량의 구호물자를 챙기는 경우도 봤다며 쓴웃음을 진다. 난민촌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피난을 와서 장기간 난민촌에서 살았던 사

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 난민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한다. 떠난 곳의 삶이 더 힘들고 돌아가도 마땅히 반겨줄 사람도 없다면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외국으로 먼저 이민 간 친척이 있으면 어떻게든 난민촌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난민촌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영구히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난민촌은 그들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 푸른색 흰색 텐트들이 줄지어 있는 난민촌은 초기 혼돈의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새로운 곳에 생겨난 난민촌이지만 피난 오기 이전의 사회의 모습을 재현하려 한다. 교회는 난민촌 어디에서나 생겨나고 큰 텐트를 구해서 교회로, 때로는 각종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다. 나름의 주민조직도 생기고 리더도 선출되고, 금하는 일이라는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이었던 사람들의 조직도 생겨나고 심지어 정치적인 선전과 선동도 일어난다. 언젠가 난민촌 내에 활동하는 르완다 범죄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이름도 무시무시한 '검은 해골단'(black skeleton)이었다.

르완다의 비극은 후투족과 투치족, 두 부족 사이의 갈등과 학살의 역사가 1962년 독립 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는 나와 같이 구호팀의 일원으로 콩고 우비라(Uvira)라는 곳에서 근무하던 딘 윈첼(Dean Winchell)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난민촌에서 어찌어찌해서 투치족 한 명이 붙잡혀왔는데, 난민들은 그를 살해하고 그 머리를 장대에 달아서 행진까지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현재 르완다 PIASS 대학교(Protestant Institute of Arts and Social Sciences)에서 개발학을 가르치고 있다. 어느 날 일본인 카주유키 사사키 박사님의 'Peace-building & Development'라는 과목의 세미나 수업에 참석했다. 사베리아나(Saveriana Muka-

gatar)라는 투치족 여성과 타데오(Thadeo Habiya-kare)라는 후투족 남성이 특별손님으로 초대되었다. 타데오는 학살에 참여한 후투족 가해자이고 사베리아나는 투치족 피해자였다. 내가 직접 수업 시간에 사베리아나에게 물어봤다. 죽음으로 내몰리던 그 날의 공포와 아픔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에게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분은 피해당한 상처로 제대로 다물어지지도 않는 입에서 바람이 새나가는 소리로 차분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그날의 기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해치던 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던 것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표현하기 힘든 짙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나와 너'라는 다양성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서로가 다름을 차별의 범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 우리는 모두 난민으로 전락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가 되고 차별하고 싸우게 되면, 그곳에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린다. 천국 가는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 오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난민이 없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훈



르완다 PIASS 대학 교수이자 나누리 미션 대표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부(1990)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개발대학원(2002)을 졸업했다. 1994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KFIH)를 통한 르완다 난민촌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난민구호와 개발사업에 헌신해 왔다. 연세대 언더우드상(2018)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사람을 사람으로>(2018)가 있다.

한국에 오신 아프간 난민의 하나님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일찍이 역사학자 토인비는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를 지나는 길의 절반은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만나고 나머지 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에서 만난다고 하였다.¹ 그런데 필자는 중요한 이 두 교차로에서 성경에 예언된 종말적 재난과 난민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 인상을 받고 놀라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와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2011년 아랍의 봄에 이어진 시리아 내전 등은 페르시아권과 아랍권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세계 전체를 흔든 난민의 시대 서막이었다. 여기서 ‘난민의 시대’라는 표현은 단지 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1,400년 이슬람 역사 가운데 한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무슬림들의 거대한 회심이 난민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를 포함한다.

2020년 말 기준, 세계의 난민(강제적 이주자)은 8,240만 명, 이중 아직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 피난민은 4,800만 명,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고 있는 해외 난민은 2,640만 명, 다른 나라에서 난민 보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는 410만 명이다. 2021년 9월 말 현재 한국의 누적 난민 신청자는 72,800명이고 이중 난민 인정자는 1,125명(인정률 2.8%), 인도적 체류자는 2,411명이다. 난민들의 출신국 중 1위는 제1교차로 알레포가 있는 시리아(670만 명), 2위는 제2교차로 바그람이 있는 아프가니스탄(260만 명)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전국토의 50%가 해발 2000미터 이상의 산악지형이며, 14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인구 3800만 명의 약 40%인 1500만 명은 파슈툰 민족이고, 페르시아어(다리어)를 사용하는 타지족과 하자라족, 그밖에 우즈베크족과 투르크멘족 등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타지키스탄)과 이어지는 5,000~7,000

1. Stephen Tanner, *Crossroad of Empires, Why Afghanistan is so often at the center of history*, May 13, 2009 : <https://www.nationalreview.com/2009/05/crossroad-empires-stephen-tanner>

미터 높이의 힌두쿠시산맥이 나라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험한 산맥과 사막으로 말미암아 고립적이고 분산적이며 독립성이 강하고 혈연 중심의 강력한 부족사회 전통을 가진 각 종족들이 생존을 위하여 상호 투쟁하기 때문에 통합 국가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아프가니스탄의 주류는 파슈툰족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까지 파슈툰 사람들을 ‘아프간인’이라고 불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억압을 당한 종족은 하자라족이며, 아프간 난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자라족은 몽골 징기스칸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였을 때 이지역을 다스리도록 남겨둔 ‘몽골인’(페르시아어로 하자르) 1천 명의 후손이다. 이들은 페르시아(이란) 말인 다리어를 쓰며 시아파 무슬림이기 때문에 파슈툰족이나 탈레반과 같은 수니파가 주류인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다. 오늘날 이 하자라족들 다수가 주계로 돌아오고 있다. 이는 마치 아랍권 난민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추수가 나라없이 아랍지역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세계 최대 종족인 쿠르드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난민은 전쟁이나 박해의 위험 때문에 사회적 토대인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이다. 삶의 근거인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토대가 무너지고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다. 난민이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난을 통하여 난민들의 견고한 토대를 흔들어 허망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난민들을 생명으로 추수하신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재

난은 ‘해산의 고통’(birth pains)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시작된 재난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날 것이다. 이는 마치 아기가 태어나야 산통이 끝나는 것과 같다. 결국, 세계적 재난은 처음도 끝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새생명들이 태어나는 해산의 과정이요 진통이며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욱 빈번히 일어날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난민이 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민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세상에 난민이 많아질수록 하루하루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처처에는 재난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땅끝의 난민들은 그 재난의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Refuge pNan) 대표이다. 1994년부터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난민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학부(1983) 및 동 대학원 석사(1985)를 졸업했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방인과 친구로 더불어 살기

박진숙 (에트랑제 대표, 우모자 운영자)



콩고 난민 여성 미야(Miyah)를 만난 건 2006년 6월이었다. 초여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세계난민의날 캠페인에 따라 나섰다. 남편은 이미 난민들과 여러 번 만난 이후라서 몇몇 아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나는 낯설고 어색해 말을 건네지 못한 채 'Refugee welcome'이라고 적힌 노란 풍선을 들고 행렬을 따라 걸을 뿐이었다.

한참을 걷다 더위에 지친 6살, 3살 아이들이 칭얼대는 바람에, 땀을 식히고자 나무 그늘을 찾아 앉았을 때였다. 피부색이 검고 인상이 좋은 여성이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배가 제법 부른 모양새가 만삭이 다 되어 보였다. 영어로 인사말을 건네다 보니 콩고에서 왔다고 프랑스로 잠깐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눈 후 헤어졌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다. 이후로 15년이 넘게

같은 인연이 이어질 줄은.

2007년 봄, 전공을 살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난민들의 서류 번역을 도와주던 단계에서 크게 한 발 나아가, 난민 지원단체 '피난처' 대표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콩고 엄마들의 한글반을 맡기에 이르렀다. 첫 수업 날은 어찌나 부들부들 떨리던지. 서류로만 접하던 아프리카 난민들 4명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너무 생소했고, 막상 전공은 했지만 프랑스어 회화 실력은 형편 없었기에 긴장감이 올라갔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콩고 엄마들은 시흥에서부터 서울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2시간 넘게 오느라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밝게 웃어 보였다.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미야였던 것이었다. 이후로 미야는 수업에 가장 집중하고 숙제도 빠짐없이 해 오는 우수 학생으로 거듭났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며 친구들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늘 고마웠다.

콩고 엄마들과 6개월 쯤 수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는 이미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친구로 변해 있었다. 관계가 편해져서인지 미야와 미쇼를 비롯한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마담 박(*프랑스어로 존경을 담아 여성을 부르는 표현), 우리 믹스커피 안 마셔요. 방식도 불편한데 흑

시 의자에 앉아 수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마담 박의 프랑스어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6개월 동안 선생님인 내가 미안해할까봐 불편함을 참아준 친구들에게 어찌나 고맙고 민망하던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 판단대로 믹스커피를 타 주고 방석을 깔아주었으니, 나 역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니었나’ 반성을 하기도 했다. 먼저 물어보고 대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베풀다는 생각이 강했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후로 절친이 된 4명의 콩고 여성들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나서 2009년에 <에코팜므>라는 단체를 세웠다. 유쾌하고 지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미야와 미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정서를 담은 그림을 그려 엽서와 티셔츠 도에 제품 등을 개발해 나갔다. 그림이라는 도구는 참 신기하게도 콩고 여성들의 이방인으로 살며 쌓인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기도 하고, 게다가 난민으로 살며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다. ‘오르그닷’이라는 꽤나 유명한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통해 유기농 티셔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였다. 런칭 파티 자리에서 이제 제법 아티스트의 분위기가 나는 미야와 미쇼에게 자신들의 그림을 넣어 제작한 티셔츠를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야는 대뜸 이런 소감을 밝혔다.

“저는 참 몽클해요. 한국 사람들이 콩고의 문화를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 미야는 이제 ‘에코팜므’의 2기 대표로 성장했다. 난민을 위해, 난민과 함께 일하는 단체이므로 난민 본인이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이 들었기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미야에게 대표직을 넘겨주었다. 아직 한국어 실력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미팅을 원활하게 진행할 만큼은 아니지만, 유창한 프랑스어와 영어 실력, 특유의 진중함과 끈기, 난민 당사자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더 탄탄하게 단체를 발전시켜 나가리라 기대한다.

난민과 함께 15년을 친구로 동료로 지내오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방인에게 박한지 시시때때로 절감한다. 우리는 ‘우리’라는 테두리가 너무 강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이방인만 겨우 테두리의 가장자리에 넣어준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자면, 난민은 나그네 중에 가장 나그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친해지고 나면 난민도 그냥 사람이다. 다만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가 손님으로 대접한다면 이 땅에서는 돌아가서든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사람들이다. 올 연말, 이웃의 범위를 넓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방인을 내 삶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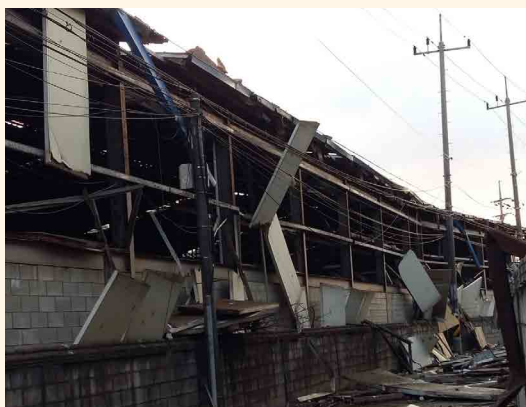
글쓴이 박진숙



‘에트랑제’ 대표이자 ‘우모자’(Umoja) 운영자이다. 프랑스어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에트랑제’라는 1인 사회적 기업을 세워, 스와힐리어로 ‘함께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우모자’라는 난민 아동을 위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불문과 학부, 서울대 대학원 불문학 석사, 연세대 아동가족학 석사를 졸업했다. 2009년 환경을 생각하며, 이주 여성들의 치유, 성장,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NGO(국제비정부기구) ‘에코팜므’의 1기 대표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내 이름은 옴비>가 있다.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은

김달성 (평안감리교회 담임목사,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2020년 1월 보일러 폭발 사고-노동자 2명 사망 10명 부상



2020년 12월 얼어죽은 속행 씨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작년 12월 캄보디아인 여성 노동자 속행(31세) 씨가 기숙사에서 사망했다. 영하 18도까지 기온이 내려간 날,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 숙소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그녀는 취업비자로 입국해 채소 재배 노동을 5년 가까이 한 이주노동자였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변을 당했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낸 동료 노동자들은 그 사망 이틀 전부터 짐승 우리같은 불법 가건물 숙소의 난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고 증언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 일 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 국가 코리아에서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국내의 언론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 사건 직후 조직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나에게 하루는 영국 BBC방송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가 찾아왔다. 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주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체없이 대답했다.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절제한 주종관계로 만드는 법과 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이주 노동자의 모든 기본권,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는 법과 제도가 ‘고용허가제’인데, 이는 고용주에게 절대주권을 준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일터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다. 또한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만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연장이나 재입국 취업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제도 아래 있는 이주노동자는 그 어떤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고용주에게 감히 하지 못한다. 고용주에게 밋보이면 당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말하는 동물’이나 노예처럼 부려도 이주노동자는 대개 굴종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 한파에 얼어 죽을만한 열악한 기숙사에 거처하는 어느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

는 농장을 찾아가고 싶어도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고용주의 사인 없이는 일터 이동을 할 수 없다는 법과 제도가 만든 현실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는 130만 명 정도다. 그들은 주로 내국인이 가지 않는 일터에서 일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만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기 때문이다. 대개 3D 업종이다.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같은 서비스업, 간병업 등에서 노동한다. 밑바닥 산업이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안 돌아갈 정도다. 몇 해 전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 있다. '일터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확고했다. 고용허가제는 위헌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쉽게 말해, 이 이유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산업화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하다. 1:99 사회라고 할 만하다. 상위 기업 10%가 나라 전체 기업 이익의 90% 정도를 독식하는 사회·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상위 10%가 나라 전체 부동산 자산의 95%를 독점하고 있다. 하위 50%가 소유한 자산은 나라 전체 자산의 2%도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격차사회 코리아의 먹이사슬 꼬트머리에 있다. 그들은 국민 밖의 국민이고 계급 밖의 계급이다. 나는 그들을 내부식민지로 본다.

외양간에서 태어나 목수 노동을 하며 살았던 예수. 그는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서 작은 자로 살았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1:99 사회로 전락한 이스라엘

에서 갈릴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 살던 변방 지역이었다. 공생애 대부분을 그 소외된 지역에서 보낸 예수. 부활한 뒤에도 갈릴리로 가셨다. 성경의 뿌리인 출애굽 사건, 곧 노예 해방 사건을 지구촌 전체에 마음 내면의 해방에까지 영구히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약하다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지배권력자들에게 잡혀 죽임당한 예수가 다시 살아나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다.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 쓰인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강조한다. 그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이른바 '양과 염소의 비유'(마태 25장)는 의미심장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는 그 비유가 가르치는 핵심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주노동자들과 맺는 관계의 성격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맺는 관계의 성격이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첩경은 이주노동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곧 예수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인 대등 관계로 이주노동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곧 예수를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달성



평안감리교회 담임목사이자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이다. 감리교신학대학 학부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영구리 뿔린 아담의 기쁨>, <예수 믿지 않는 기독교인>, <교회에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 <파랑 검정 빨강 : 코리아 내부식민지 이주노동자 이야기> 등이 있다.

파리제일장로교회 난민선교 사례

김요한 (파리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난민연구소 소장)



유럽의 난민들은 더블린 조약(1990)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서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한 곳에서만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는 다른 회원국으로 떠도는 난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 난민 수용과 지위에 대한 유럽의 사회적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곧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다. 유럽의 난민 수용은 난민촌을 통한 철저한 국가 난민수용원칙에 따른다. 개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NGO 단체 접근은 철저하게 불허되고 있다. 2021년 프랑스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약 3,000여 명의 난민이 난민촌으로 입성했다. 이들은 약 3개월 후 사회로 진출하게 되지만, 현재 프랑스에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편입이 어렵기에, 일부는 프랑스 지방으로 흡수되고, 일부는 영국행을 위해 칼레(Calais)로 향하게 된다. 파리제일장로교회는 이슬람 선교에 목표를 둔 사역의 일환으로 난민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제한된 이 지면을 통해 잠시 나누고자 한다. 이 사

역은 무엇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위험이 노출된 상황에서도 역동적으로 난민 선교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우들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첫째, 파리제일장로교회는 2016년 제1차 ‘아랍페르시아유럽난민협회’(A-PEN Arab Persian Europe Network) 포럼을 파리에서 일주일간 개최했다. 이것은 교우들의 적극적 후원과 섬김, 동의하에 진행된 값진 행사였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난민 선교에 중요한 역할과 계기가 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럼을 통해, (1) 아랍중동권, 페르시아권 현지인 난민 사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하였고, (2) 매년 급변하는 중동 난민 상황 및 이동 경로 파악 보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난민 선교 방법론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중 하나는 ‘난민이 난민에게’(Refugee to Refugee: R2R), 즉 무슬림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실효성을 거두었다. 어느 아

프가니스탄 형제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에서 자국 그리스도인과 자국민들을 직접 구출해내기도 했는데, 그 수가 100여 명 이상이다. A-PEN 포럼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 A-PEN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난민 선교사는 220명이다.

둘째, 어린이 난민 기숙사 방문을 통한 심리적 치료 사역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체류증이 없어도 입학은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어와 학교 적응이 미흡한 아이들은 별도의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기관에서 난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봉사(음악, 미술, 프랑스어)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종교적 의도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이 사역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이슬람의 옷을 벗겨서 기독교 옷을 입혀보자는 선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지금은 아이들의 개인적 돌봄이 어른들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사역 동기는 20~30년 후, 유럽의 이슬람화(?)를 대비하겠다는 선교적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이에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이 교회를 통해 이러한 난민 어린이 기숙사에서 교사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셋째, 거리 노숙자가 된 동구권, 중동아랍권, 페르시아권, 아프리카권 난민(이주민)들을 위한 식사 배급 사역이다. 2020년 파리 시내의 레퐁블릭(République) 광장 인근에서 약 500개의 난민 텐트 철거와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 진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교회는 난민에서 이주민으로, 이주민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이들을 위하여 노숙자 식사 배급을 마련했다. 이 사역은 파리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 교회 부엌에서 1인당 15유로 정도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하는데, 모두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프랑스 지방 난민 단기선교 사역이다. 프랑스 지방 난민 선교사와 함께 난민들을 위한 식사와 의류

등 나눔 사역, 창고 정리, 물품 정리 및 새 난민 정착을 위한 상담과 등록을 도와주기 위한 단기 난민 사역이다. 교회는 지방 난민 임시숙소로 카라반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난민 단기 선교팀 8명은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섯째,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아랍 난민 선교사역 후원이다. 레바논의 난민 유치원과 학교, 터키의 난민 교회, 요르단의 어린이 난민 급식, 터키 페르시아권 난민 교회 식사 지원, 이집트의 병원 후원 및 어린이 난민 급식 지원, 레스보스의 어린이 난민 선교 지원, 인도네시아의 난민 학교 급식 지원, 오스트리아 및 독일 시리아 난민 가정 및 교회 등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A-PEN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난민연구소를 개소해서 난민 교과서와 정기 난민 저널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각 국가별(11개) 난민연구원을 개원하고 있다. 이제 A-PEN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난민연구소를 통해 중동 무슬림 난민 선교가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간략히 소개한 난민 선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서 본 교회가 현재로서 난민 선교의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소니

유학생 중심교회인 파리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이며, ‘아랍페르시아유럽 난민협회’(A-PEN)이사장, 아세아연합신학대(ACTS) 불어권연구원장, 난민연구소장이다. 1980년 남미로 이민을 갔으며, Nyack College(N.Y.) 총신대(M.M) 아세아연합신학대(M.A, TH.M), 뉴욕대신(M.Div), NewYork Seminary(D.min과정), 미주총신(D.Min, TH.D과정)을 졸업했다. 24년간 불어권 아프리카 정기세미나와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섬김 동역으로의 초대

지문선 (ISF(국제학생회) 본부장)



2021년 7월 31일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152,281명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2월 31일 160,165명에 비해 대략 1만 명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외국 이주민 수가 2,524,656명에서 1,974,141명으로 대략 550,000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 한국 내 외국인 학생을 나라 별로 보면 중국 67,348명, 베트남 35,843명, 몽골 6,028명, 일본 3,818명, 미국 2,218명 순이다. 그렇게 외국인 학생은 캠퍼스 안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대학가 주변과 인근 가게, 식당, 심지어 농어촌 지역과 건설 현장에서도 단기로 일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는 많은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귀국 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만만하지 않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위주 수업을 하는 요즘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더 많은 고통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업과 과제물의 양은 훨씬 늘어난 반면 도움을 요청할 한국

인 친구는 거의 없다. 유학생의 91%가 자비 유학생이기에 아르바이트는 거의 필수인데 일할 수 있는 곳은 더 적어졌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를 도우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러한 유학생들의 상황에 주목하고 어떻게 이들을 돕고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필요는 다양하다. 한국 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물적·학업적 도움,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정서적·사회적 도움, 복음을 통한 영적 채움 등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영적 필요’ 위주로만 채우려는 경우가 많았다. 수십 년간 유학생을 섬기면서 알게 된 것은 이들은 ‘육적 필요’(Felt need)가 대개 1학기 이상 우선 채워져야 비로소 ‘영적 필요’(Real need)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유학생과 친구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은 왜 저에게 잘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다 바빠서 저에게 관심이 없는데 선

생님은 왜 그 사람들과 달라요?” 유학생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한다.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친구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학생 한 명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에 먼저 받은 사랑과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유학생을 섬기는 사역은 우정을 기반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과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유학생들은 교회와 기독교가 자신들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준 것에 아주 고마워하며 좋은 종교로 여겼지만, 교회에 데리고 가기 위해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며 불평한 적이 있다. 포교를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관계와 마음이 준비된 학생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유학생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하시고 주위에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가 유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반드시 유념할 것은 유학생 대부분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유학생들이 귀국 후 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도록,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도록 한국에서부터 준비하고 도움 필요도 있다. 우리의 섬김이 단지 유학생들을 한국에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만 목표로 삼는다면, 이들은 항상 영적 어린아이로서 지도자로 훈련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귀국 후, 대

개 한국보다 열악한 본국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렇게 유학생 선교는 개인 회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귀국 후 그 학생이 몸 담고 있는 가족과 민족, 그 나라 미래와 관련이 있다.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훌륭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 때 그 나라가 발전하고 평화가 깃든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심어지고 준비된다면, 귀국 후 본국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학생 선교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다! ‘코로나 19’로 해외로 나가는 선교가 막히고, 국내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신음할 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줌으로 유학생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로 인해 선교의 또 다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 더 많이 입국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손길과 사역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지문선

재한 유학생들을 돕는 ISF(국제학생회) 본부장이다. 한국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부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 Div)과 선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일산 장로교회 청년2부 담당 교육목사, 미션파트너스 운영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재한 유학생 복음 사역의 필요성과 시급성

김병문 (서울대 화학부 교수, CICA 대표)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눈에 띈다. 한국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유학생이 오게 되었고, 또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2,000년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4천 명으로 한국어 공부를 위해 온 일본과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유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16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15만 명 정도로 일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한 유학생들은 2020년 189개 국가에서 왔고, 약 44%가 중국 학생이며,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약 80% 가까이 차지한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 가들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최빈국 수준에서 세계 10 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배우기 위해 우수 관료나 학자들을 선발하여 파송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귀국 후에 자국 정부의 고위관료 또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게 될 인재들이다. 주목할 것은 이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다수가 자국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출신 배경이 남다른 자들이며, 고국에서는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학생들도 한국에서는 비

교적 자유롭게 그리스도인 학생들 모임에 참여하거나, 이들의 인도를 통해 국제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나아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같이 많은 재한 유학생은 5,000년 한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이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놀랍고도 새로운 ‘선교의 창’(window)이 열린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학생들 선교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먼저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우리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보다 더 큰 문화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와 대학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제대로 받아들이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주위의 생활 여건은 아직도 국제화가 덜 된 부분들이 많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시작된 '서울대학교교회 국제예배'(SNU International Church)의 시작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친구가 되어 한국 생활의 적응을 잘 도와 주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차츰 복음에 대한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 국제예배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외국인 학생 동아리인 ISO(International Students Organization)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매 학기 초에 신입생 환영회로부터 국제음식 축제, 시내 관광, 겨울옷 바자 등의 다양한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학생 중 예배와 성경 공부 및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일부는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 여러 대학의 그리스도인 교수들에 의해 국제교회 또는 채플들을 속속 세워주셨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들의 연합체 CICA(Campus International Church Association)가 공식 출범하게 하셨다. CICA에는 현재 13개 대학(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및 서울캠퍼스, 건국대, 전북대, 충남대, 고려대, 홍익대, 한양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솔브릿지, 광주과학기술원)의 국제교회들이 연합하고 있다. CICA는 2013년부터 전국의 재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2박 3일의 GSM(Global Students Mission)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19년까지 매년 약 350여 명의 재한 유학생들이 함께 수련회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온라인에서 약 4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한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에는 누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일까? 2020년 한국교회에서는 약 170여 개국 이민이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 가운데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파송된 전문 선교사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한 유학생 선교는 지역교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때문에 결국 이들을 향한 선교는 캠퍼스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지역교회가 공동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속히 한국교회가 재한 외국인 선교에 대해 눈을 뜨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 내 국제교회를 통한 유학생 사역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학생 선교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창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초기 재한 유학생 선교사역에 헌신한 그리스도인 교수들의 1세대가 지나가고 있어,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껏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2-3)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 캠퍼스에 몰려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새 표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선교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새 역사를 써 나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병문



서울대 화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화학부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무처장, BK21 화학분자공학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17기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서울대학교교회 국제예배 섬김이, CICA(Campus International Church Association) 대표로도 섬기고 있다.

난민, 나그네, 디아스포라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설립자

한국 정부는 이른바 '미라클' 작전을 통하여 지난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을 현지에서 국내로 구출해왔다. 이들은 한국 국민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단순한 난민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체류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18년 제주도에 피난 왔던 예민 난민들에 대한 반대 기류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난민, 이방인 나그네는 누구인가? 오랫동안 난민, 무국적자, 다국적 기업의 노동 인권 침해 피해자 등을 돕는 현장 전문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영리 공익법센터 어필(APIL)을 세워 왕성한 활동을 해오신 김종철 변호사님과 함께 '난민, 나그네, 국내 거주 이방인들'을 향한 바른 섬김의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를 모색해 본다.



일시 & 장소 2021년 10월 26일(화), 오후 7시 공익법인 어필 사무실(안국동)
인터뷰어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정리 & 사진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김재완 변호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난민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집중해 오셨 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김종철 우연한 건데요, 난민 문제를 섬겨 온 '피난 처'(대표: 이호택)라는 NGO가 있어요. 제가 사법연수원 을 다닐 때, 자원봉사 기관을 찾다가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난민들의 이야기에 매료가 되어서 함께 그들을 섬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감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해피엔딩으로 가게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처음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재완 변호사님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 (APIL)을 세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이 어 오셨습니다. 개인적 인권 변호사의 길이 아닌, 이렇게 별도의 기관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종철 그전에도 '프로보노'(Pro Bono)¹의 형식으로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간간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느 켜던 것이 내가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재밌게 할 수 있

1.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의 약어로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는 영역인데,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처음 어쩔을 세울 때 두려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 경력이 공익 영역으로 고정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비영리 기관이라서, 오직 다른 사람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고민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한 것은 소속해 있던 CLF(기독법률가회)의 응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CLF 동료 변호사 두 분이 1천만 원씩 조건 없는 시드머니를 주었어요. 사실 그 응원이 큰 감동이 되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김재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약자들, 특별히 난민, 무국적자들과 관련한 한국의 제정 법안들과 인권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종철 어떤 사회의 인권 수준을 평가하려면 그 방법의 하나가 가장 취약한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난민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지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사회라는 것, 단순히 정서적 차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인종주의가 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똑같거든요. 150개국이 비준한 난민 협약이라는 그 규범에 따라서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최근 수년간 1%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적 평균은 약 30%이고, 독일은 40%나 되거든요. 독일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지만 수십 배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두 배 정도이고 땅덩어리나 인구도 두 배 정도 많은데 독일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대국이고, G7에도 초청되는 나라라는 자랑을 많이 하는

데요. 최근 난민 인정률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시민의식은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재완 지난 2021년 8월 27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 체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김종철 그분들이 안전하게 오게 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 협력한 '특별기여자'는 아프가니스탄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모든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다만 이번엔 온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 협력했기에 탈레반의 공격 목표가 되었고, 그래서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우리 정부가 마땅히 도와야 할 난민들입니다.

그러면 난민을 그냥 난민으로 부르면서 도우면 되는데, 왜 '특별기여자'라는 별도의 명칭을 붙이느냐 하면,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난민의 혐오를 그대로 상수로 두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복선을 깔고,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새로 붙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단지 난민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난민에 대한 사회적 혐오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일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때때로 그러한 난민 혐오에 편승하려고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김재완 이번 입국자들의 상황은 지난 2018년, 내전을 피해 온 예멘 난민에 대해 한국 사회가 보인 반응과 많이 다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



트 등으로 인식하는 혐오 정서는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종철 맞습니다. 다만 예멘 난민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하고 약간 다른 측면은 뭘까 저도 생각해 보는데요. 예멘 난민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린 사람들이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 인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재완 변호사님은 그리스도인 법률가이시지요. 성경에는 고아, 나그네, 과부에 대한 무조건적 섬김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신 10:18, 신 14:29, 속 7:10, 시 146:9).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외국인 약자들을 향한 인식은 한국 사회 일반과 별반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종철 성경을 잘 못 배운 것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못했

습니다. 나중에 난민들과 함께 일하고 나서야 성경에는 너무 많이 이주민과 난민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체가 난민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헤롯의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민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결국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형성된 이주자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성경에는 “너희도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환대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5~40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묻고 답하시지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실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결국 “내가 이방인이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를 기억하고 이방인을 환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난민과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완 변호사님은 난민을 ‘착한’ 사람이 아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자주 말씀해오신 것으로 압

니다.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철 난민을 바라보는 양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난민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난민은 매우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극단적 입장은 잘못된 것이죠. 난민들도 근본적으로는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우리처럼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난민들은 더 착한 사람도 있고 더 나쁜 사람도 있고, 웬만큼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극단의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욱이 난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저도 전에는 선배들이 이주민 운동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자주 들은 적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하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왔더니 그 사람들이 배신했고 도와준 것을 가지고 나쁜 일에 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회의감을 느끼고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 선배들은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할까? 왜 그 사람들은 꼭 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물론 저도 때로 실망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내게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완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의 문제 해결

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종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난민을 많이 인정하는 겁니다. 최근 난민 인정률 1% 미만은 정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재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의 안내만큼 적극적 섬김에 인색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슬람 포비아(공포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지나친 포비아를 갖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가짜 뉴스들, 굉장히 자극적 뉴스들만 보는 영향이 큼니다. 우리가 주로 듣는 것이 IS 같은 이야기 아니까요. 이슬람은 원래 다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조건 괴멸시켜야 마땅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예일대 복음주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의 저서 <알라>(IVP, 2016)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재완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권면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철 글썄요. 저는 난민 일을 그들의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그러나 결국 더 나은 이야기로 살게 된 것은 저 자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 역시 어쩌면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악자들을 구원하고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결국은 악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게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우리 주님은 난민이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이방인으로 우리 곁에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기독교세계관학술역회 실행위원 및 감사)



어려서부터 나는 삶의 의미에 관심이 많았다. 나의 인생과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수없이 스스로 질문하곤 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일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물리학,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내 신앙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내가 깨어 있는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일이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내 인생 대부분은 의미없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관심사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일과 신앙에 대해 나누는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어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 그 모임에는 나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신학 공부하러 온 분들과 목회 현장에 계시던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 여러 유익한 나눔을 가졌다.

이 세상에서의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 결국 이 문제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핵심 주제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임하는가? 지금 돌이켜 보면,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배웠지만, 성경에서 결국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읽었던 여러 기독교 세계관 관련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곤 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 가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점차 찾게 되고 파편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퍼즐 맞추듯 맞추어져 가는 것 같았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한다. 자신이나 가족에 한정된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 또는 인류 같은 훨씬

더 큰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일 수도 있다. 위정자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누구일지 고민하고 투표하게 된다. 그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은 세상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더 험악한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더 나은 세상,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천 년 전 이미 하나님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하였고 누룩이 퍼지듯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될수록 나는 이러한 위대한 세상이 정말 올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그 핵심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드러내는 삶을 진실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매우 명료한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私益)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죄성이 결합되면,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도 왜곡되

며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하게 된다.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다 알려줘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나눔의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내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이다. KAIST 물리학과에서 광학을 전공했고 (Ph.D.),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M.A.) KAIST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중앙기독교중학교, 삼성전기, LG전선에서 일했으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감사로 섬기고 있다.

편견을 넘어 화해의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의 여정

신희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 재판연구원)

나이로비에서 긴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타투(미니버스)가 정류장을 떠나기 전에, 흰 칸즈(땅에 끌리는 튜닉)를 입은 남자가 올라타서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나를 보려고 자꾸 돌아서는 눈 큰 아이에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낮은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옆을 쳐다보니 흰 칸즈의 남자가 쿠란을 꺼내 아랍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반짝이는 검정색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순간 피투성이가 된 마타투 폭탄 테러의 이미지들이 머리를 스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불안감을 누르려 애쓰는 동안 땀이 흘러 셔츠를 흠뻑 적셨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견디다 못해 나는 결국 마타투에서 뛰어내렸다. 나를 두고 떠나는 마타투를 보며 나를 응시하던 눈 큰 아이와 승객들이 뒤늦게 떠올랐다.

그날 마타투 폭탄 테러는 없었다. 뉴스를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안도감과 당혹감이 함께 밀려왔다. 동료들은 나에게 2차 PTSD(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했다. 나처럼 테러 생존자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면 흔한 일이라며 어쨌든 버스에서 내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도 했다. 안전이 제일이니까! 하지만 나는 내 행동이 여전히 부끄럽고 실망스러웠다.

나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이다. 서른이 되기까지 한 곳에서 5년 이상 산 적이 없었다. 캐나다, 미국, 한국 등 어디서나 '외계인'임에 익숙했다. 소속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일조차 눈총을 받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었다. 그런 부당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나는 전략을 짰다. 혹시 나부터 내 속에 있는 편견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법을 익히면 나를 향한 편견들을 극복하고 고칠 수 있는 비법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는 내 속에 있는 편견을 알고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10년 넘게 여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 소수민족, 수감자 등과 함께 일을 했던 것도 그 연장선에 서다. 덕분에 내 인생이 풍성해졌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남의 말을 깊게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차이를 조금씩 극복하는 기술도 익혔다. 문화적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케냐에 도착했던 나는 나의 편견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평화롭게 아랍어로 기도하던 흰 칸즈의 남자를 순식간에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편견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일깨우게 해주셨다. 물론 그동안 나의 노력이 쓸모없었



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내가 PTSD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로 끝이 날 수도 있었다. 그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나의 행동과 생각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끼칠 수 있는 행동과 생각인지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러 편견에 대한 공부를 하되 초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대신 공부를 함으로써 열려진 눈으로 내가 실수할 때 사과하는 겸손함을, 그리고 남이 자신의 편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기르려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무서운 것이 많은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더 무서운 곳으로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뿐이라 하셨다.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생각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겸손함과 용기를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신희원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검찰청 검사연수를 할 예정이다. 미국 칼빈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심리학을 공부했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책학 석사,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했다.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르영 티 튀 짱 (한국성서대 4학년)

나는 한국성서대학교 4학년 학생이다. 베트남 출신으로 2018년 봄 처음 한국에 왔다. 베트남을 떠날 때 어떤 분이 두꺼운 코트를 주시며, 한국은 추우니 가져가라고 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고 왔는데, 만약 그때 안 입고 왔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한국은 봄 날씨도 너무 추워서 3개월 동안 자주 아팠기 때문이다. 나는 비자 문제로 개강일보다 2주나 늦게 한국에 도착했고, 오자마자 바로 수업을 들어가야 했기에 바빴다. 정착 초기 충격을 받았던 일이 몇 가지 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려는데 베트남 돈으로 환산해 보니 너무 비쌌다. 또 한국에서는 무엇을 할 때마다 주로 기계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사람이 해준다. 그래서 기계는 어떻게 사용할지, 수업의 자료들은 어떻게 받을지 모두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모르는 것들을 매번 물어볼 수도 없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다시 베트남에 돌아갈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 와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선 교통이라고 바로 대답한다. 그다음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재학하고 있는 신학대학교가 일반대학교처럼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어서 좋다. 한국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좋아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지만, 위에 있

는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것들이다.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현재 도우미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한국말이 여전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프로그램들을 너무 좋아한다. 따라서 언젠가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로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 적용해보고 싶다. 나는 가족이 없는 한국에 와서는 외롭게 살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성서대학교와 출석하는 서울 광영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좋아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매 학기 중 시험을 보는 기간마다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밤 열두 시에 밥, 라면, 간식 등을 제공해 준다. 내게 한국의 봄이나 가을 시험 기간의 저녁 시간은 여전히 춥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때 학교에서 따뜻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어서 너무 감동했다. 더 신기하고 좋았던 것은 학교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받을 장학금들이 정말 많다. 현재는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서 주로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는 시험 날에만 가지만, ‘코로나 19’ 이전에는 추운 시험 기간에도 학교의 여러 배려 덕분에 마음이 항상 따뜻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한국에 왔고 베트남에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써야 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서 마음에 제일 힘든 것은 학비 문제였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거의 모두 다 무료로



서, 학비 대신 회비 같은 것만을 내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 한국의 신학대학교 학비는 너무 비쌌다. 1년 학비가 베트남 시골에 작은 집을 한 채 지을 정도의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 생활 처음 1년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울며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경험시켜주셨다. 출석하는 서울 광염교회 담임목사님과 면담 기회를 주셨고, 담임 목사님께 비전을 전했다. 대학교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하셨다. 나는 이 은혜가 꿈처럼 느껴져서 면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사실인가 하여 얼굴을 톡톡 두드리며 확인했다. 큰 걱정은 물러갔고 대신 날개가 생긴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장차 서울 광염교회 담임목사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사랑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학년 때는 교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여행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 4학년이 된 나는 최근 친구들이 졸업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형편상 쉽지 않은 일이었

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셨다. 어느 날 ISF(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인 내게 제주도 여행의 기회를 얻도록 하신 것이다. 물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짱아, 졸업여행 가야지!”라고 하시며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 6:8)라는 말씀처럼, 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 돌이켜보니 한국에 있는 동안 못할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누렸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좋은 학교, 좋은 교회, 좋은 선교단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르영 티 튀 팡

베트남 럽동 출신으로 현재 한국성서대 성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서울 광염교회 영어 예배부의 찬양팀과 소년부에서 도우미 교사로 섬기고 있다. 내년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으며 유학을 마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위해 ‘첫 번째’로 살기를

왕린 (KAIST 기계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나는 중국에서 가난한 농부의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1990년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끔찍했다. 많은 ‘두 번째’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엄마는 내가 우리 마을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두 번째 아기라고 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과 양 치는 일을 도왔다. 고등학교 때는 삶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철학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민감한 청소년기의 나를 더 우울한 상태로 몰고 갔다. 갑자기 인생이 기계 시스템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은 웬지 극도의 공허감으로 가득했다.

하얼빈공대를 졸업하고, 2014년 가을 한국의 KAIST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낯선 환경 때문이었을까 마음이 더 외롭고 공허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대부분 공부만 하며 보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다시 어느 철학책을 읽던 기간, 어느 날 인터넷 블로그를 무심코 보다가 성경을 소개 받았다. 나는 즉시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으나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다. 교회에 가서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학교생활을 하던 2015년 어느 날, 친구에게 KIC(Kaist International Church)을 소개받

았다. 교회에는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예배하고 있었다. 예배와 말씀이 다 좋았다. 나는 어느 날 예배 중에 ‘호산나’ 찬양을 부르다가 울음을 터트렸다. 한 학기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2016년 5월 26일에 마침내 침례를 받았다. 형제, 자매들로부터 정말 많은 축하 꽃다발을 받은 그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2018년 나는 KIC 성경공부 리더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섬겼는지 점차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지난 수년 동안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서, 성경 공부와 독서 훈련을 받으며 나도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다. 나는 박사과정 기간에 매우 바빴지만,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풍성히 즐겼다. 2020년에는 불신자였던 아내가 함께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 결혼 후 아내와 나는 친구들을 집에 초청하여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주일예배에 초대하고 있다.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복음의 자리에 초청하는데 내 집을 사용하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1년 6월에 나는 마침내 인공지능(AI)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그저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KAIST와 KIC에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



다. 박사과정은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셨다.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KIC의 리더십과 조병진 교수님의 격려로 캠퍼스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도 배웠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교수직을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되려면 박사후과정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시도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학인 홍콩과학기술대(HKUST)에 지원했다. 면접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합격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후속 회신이 없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매일 기도할 뿐이었다. 한 달 반 후, 드디어 홍콩과학기술대에서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공식 이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홍콩과학기술대 행정 담당자는 내가 미국 학위나 박사 후 과정 경험이 있는 다른 많은 지원자들과 비교해서 경력으로는 불리했지만, 인터뷰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해당 학과 학과장님이 나를 최종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의심 없이 당신을 믿게 만드신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서 왜 내가 부모님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우선 중국 고향의 가난한 환경에서 훈련하셨다. 또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하셨다. 이 광야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공허할 수 있었기에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한국의 KAIST에 유학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최선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을 것들 알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길을 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다. 항상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FAITH & LIFE**



 글쓴이 왕린

중국인으로서 하얼빈공대를 졸업했다. 2014년 8월 KAIST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 2021년 6월 인공지능(A.I.)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KAIST 박사후 연구원이며, 최근 임용이 확정된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교수로 곧 합류할 예정이다. 2015년 친구의 전도로 KIC((Kaist International Church)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현재 교회 성경공부 리더로 섬기며, CICA(Campus International Church Association)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복음 전도 : 재한 유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섬김

최위 (성균관대 국제교회 전도사)

나는 중국의 한족 출신으로 삼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가정교회 목회자였다. 부모님은 내게 종종 “너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당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그러다가 17세 때 어느 청년 수련회에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치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주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만났다. 평생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2012년 신학 공부를 위해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성서대학교에 입학했다. 2014년부터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많이 부족했지만 귀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귀한 사역을 섬기게 하여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그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내게 넘치는 사역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더욱 잘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유학생 사역을 섬겨오고 있다. 부족한 나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형제자매들이 변화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때론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섬김을 받는 많은 자들이 타국 땅, 이곳 한국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히 느끼길 바란다. 또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근심하지 아니하며 서로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침내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권세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수년간 전도를 통해 매년 평균 4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 중국으로 파송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약 200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이 섬김과 양육을 받고 중국에 돌아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돌아간 후 신앙생활을 포기한 이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많은 경우 유학생들은 한국교회의 다양한 봉사와 섬김, 형제자매들 사이의 돌봄과 친교 때문에 마음이 열려 교회에 나왔으나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할 기회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상태로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중국교회는 한국교회에 서와 같은 성격의 섬김 활동이 거의 없기에 교회 출석을 멈추게 된다. 즉 중국교회의 모임은 대부분 오직 설교, 성경 공부, 기도 모임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직장의 노동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원, 공무원, 국영기업 등의 근무를 이유로 귀국 후 교



회를 떠나는 유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면, 우리는 한국교회의 유학생 섬김은 그동안 학생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생생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들이 영접시키는 데까지는 못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학생들은 대륙에서 오랫동안 당에 의해 '재배'된 이데올로기에 영향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시키는 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또 모든 섬김 후에도 효과는 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영접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뜨거운 감자를 버리는 것과 같이 유학생들을 보내고 할 바를 다했다고 여기기에 귀국 후 교회 이탈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길일까? 유학생들의 다수는 한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을 보내기에 많은 섬김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중 체계적 단계를 거쳐 복음을 영접시키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적이다. 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많은 단계가 있기에, 대개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 할 수 없다면 한국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만 하고 수확(收割)은 이후 중국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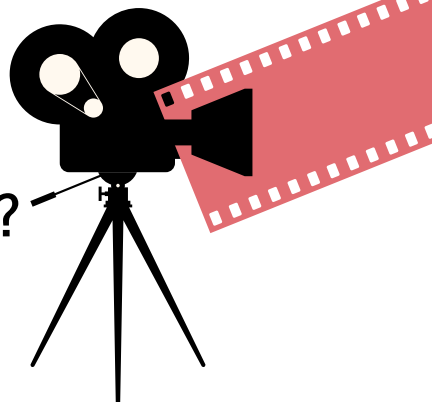
회가 거두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는 가운데, 이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매일 경험했다. 그래서 재한 유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예수 복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과 전인격적 변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역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길 것이다. 모든 중국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날마다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귀국 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위

중국 산둥성 출신 중국인으로 현재 성균관대 국제교회(ISC-SKKU, 서울) 전도사이며 감리교신학대에서 선교학 전공 박사과정 중에 있다.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 학부와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청주종교교회 중국인에배 사역자를 역임했다.



〈오징어 게임〉으로 본 ‘난민’, 구원의 길은?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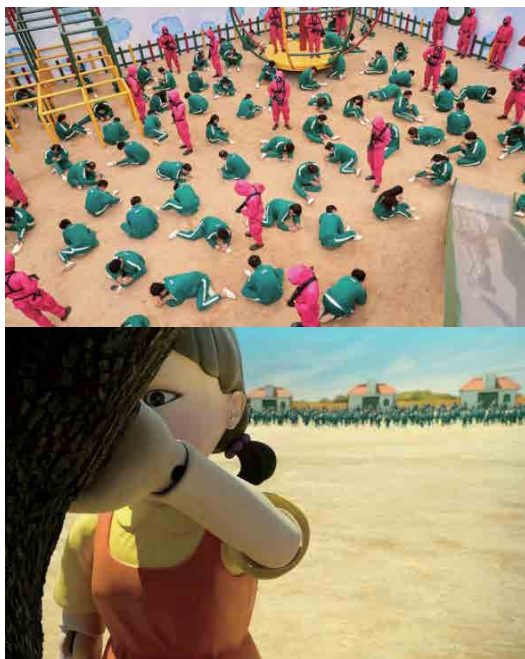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에서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한류의 힘을 기뻐하기보다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은 왜 그럴까? 영상에서 펼쳐지는 폭력성, 잔인함, 냉혈함 등 때문만은 아니리라. 스토리를 구성하는 배경의 사회 현상이 자본주의의 말기적 현상과 붕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양극화! 사람이 돈에 노예가 되어 물신(物神)에게 쫓기다 찾아간 해결책. 설마 그런 게임일 줄이야. 게임으로 빚 청산을 하려는 소시민적 바램은 자신의 목숨을 건 냉혹한 게임. 참여자들은 하나, 둘 사라져가고 남는 자는 단 한 명만 살아남는다는 설정은 게임이라도 절망의 절망이다. 종말론의 비극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들은 이런 비극적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첫째는 개인적 선택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능력을 넘어 돈을 추구한 게 문제였다. 그 결과는 책임질 수 없이 쌓인 빚. 둘째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그들이 속한 사회는 돈을 문제의 답안으로 부추긴다. 사회가 ‘도덕적’이라고 믿는 이들은 어찌면 순진한 건지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는 직간접으로 돈을 최고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미국발 금융 사태나 우리나라 ‘영끌’ 사태는 모두가 돈으로 달려가게 만든 결과 아닌가. 우리 사회는 그만큼 병들어 있고, 윤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건실한 시민을 점점 난민으로 내모는 구조라는 의미이다.

〈오징어 게임〉에는 “이것이 적나라한 현실이다”라는



외침이 들어있다. 돈의 노예가 된 사회, 비정한 물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들을 노리개로 삼는 소위 VIP들은 또 누구인가. 감독은 비탈진 현대 사회에 대한 충격요법으로 이런 표현 방식을 선택했다. 부정한 사회는 난민을 만들어낸다. 부정한 윤리가 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 난민은 압둘 알리다.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이루기 위해 들어왔다. 그러나 그의 꿈은 흔들리고 끝내 게임에 인생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은 동남아 출신이 많다. 때로는 멸시를 받으며 월급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알리의 처지도 비슷했다. 알리는 약삭빠른 증권맨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만 비정



한 속임수에 당한다. 결과가 비극적이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이용당하다 목숨까지 잃는다는 설정이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알리와 함께 게임장에 들어선 모든 참여자도 따지고 보면 다 난민이다.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족, 직장, 고향을 떠난 그야말로 소외된 난민들이다. 현실 터전은 사라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실존은 피 튀기며 쫓고 쫓기는 살벌한 현실이다. 섬 밖의 현실이라고 천국과 같은 곳일까.

‘난민’은 이 지점에서 상징적이다.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나 난민 상황은 소외(entfremdung)이다. 난민은 정치적, 경제적인 곤란함으로 터전을 떠난 이들만이 아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내면을 상실하고 혼란을 겪는 이들이라 하겠다. 난민은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소외에 더하여 정신적 소외를 겪는다. 자아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자아 분리는 모든 관계를 왜곡한다. 정상적인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자는 무엇보다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원초적 욕망과 허세에 사로잡혀 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존재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빌 3:20).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에덴의 조건’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유혹과 미혹으로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소외는 현실이 되었다. 영적으로는 모두가 난민이 되어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아간다. 육적으로는 난민의 경계를 오간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오징어 게임>에서는 너와 내가 모두 육체의 ‘정욕과 소욕’(갈 5:17)에 따라 살다가 ‘난민’이 되었다. 이 극적 설정이 결코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개인의 윤리, 사회의 공의만 가지고는 난민의 비극을 극복할 수 없다. 부분적 처방으로는 총체적 불의를 해결할 수 없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오직 불가항력적 은혜와 사랑만이 이 인간 조건(conditio humana)을 해결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추대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표류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난민’이란 사전적으로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2020년 기준으로 2,640만 명의 난민이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늘도 최소한의 존엄마저 위협받으며 불확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은 ‘난민 포비아’라고 할 만큼 난민을 대하는 시선이 부정적이다. 얼마 전에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일 때 ‘한국 협력자’라는 이름을 둘러대야 할만큼 난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유럽에서 화제가 되었던 난민소녀 ‘리틀 아말’(Little Amal) 퍼포먼스가 국내에서 펼쳐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우리가 난민 입국을 거절할 이유를 낸다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면 외신에서 접했던 시리아 20대 청년의 말이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다. “우리는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가 아니다. 우리는 학생, 의사, 교사이지 숫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연이 있고 과거가 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미술가들은 난민을 어떻게 보았을까? 사진작가 전해리는 파키스탄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계 전역의 분쟁 지역에서 난민의 참상을 생생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전 세계에 전했다. (그림 1)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난민들의 여정에 함께하며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는 시리아 난민들의 탈출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작가는 그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걱



(그림 1) 전해리, 그리스 섬인 레스보스 해안에 착륙한 직후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는 시리아 여인, 2015년작

정해 위험마저 불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거리 예술가 뱅크시(Banksy)는 누구보다 난민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지닌 작가이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구에 있는 한 호텔에 <2017년의 지중해 광경>이란 작품을 기증하였다. 자유를 찾아 떠돌다가 바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처참한 삶을 환기시키는 작품이었다. 이외에도 뱅크시는 반짝이는 네온 핑크 플레어를 들고 구멍조끼를 입은 이주 아동의 벽화를 그린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정글’(the Jungle)로 알려진 프랑스 북부 칼레 난민 캠프에서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이미지를 스텐실로 표현하기도 했다.(그림 2)

많은 인물중에서도 스티브 잡스를 선택한 것은 그가 미국으로 이주한 난민 출신, 즉, 시리아계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난민들을 돕는 것이 국가의 재원 낭비로 생각되지만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이주자의 아들이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이며 연간 7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



(그림 2)_뱅크시, 난민, 2015

것은 시리아 출신의 청년을 허용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것이 뱅크시가 칼레의 벽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이다.

중국 출신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는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각국을 떠도는 난민들을 실물 사이즈의 인체 모형으로 다루었다. 또 난민들의 신발이나 옷가지 등을 모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험란한 여정을 암시하기도 했다. 시리아에서 부모를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가 터키 인근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주검을 담은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난민 문제에 뛰어난 아이웨이웨이는 “난민의 위기는 난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다. 삶의 필수적인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투쟁보다 재정적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는 이 위기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계 화가 니콜라이 신(Nikolai Shin 1928-2006)은 스탈린 당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카레이스키 중의 한 명이었다. 한국인 17만 명이 스탈린의 분리·차별 정책에 의해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황무지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무려 2만 5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이 신은 화가가 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동족의 역경과 고난을 화폭에 담았다. 그의 연작 ‘레퀴엠’은 고난의 땅에서 받은 고통을 생생히 증언한다. 유민사의 기억은 우리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그림 3)

난민은 나그네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과의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에는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집을 찾아가는 나그네, 즉 ‘난민의 영성’으로 묘사한다.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난민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뜻이다. 길 위의 삶이란 험난하고 불확실하며 배고픔과 목마름, 선동과 유혹, 한숨과 시련으로 얼룩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정착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상상하게 만드는 유혹을 경계하면서 현재의 거짓 약속에도 속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길 위의 삶을 걷는 그분의 백성에게 이방인과 나그네의 운명에 특히 민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바로 우리의 이웃, 즉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닐까? . FAITH & LIFE



(그림 3)_신순남, 레퀴엠, 1990, 캔버스에 유화, 300 x 440cm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갈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이명진 (의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을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일까? 포스트모던 사조를 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의 배후에는 어떤 사상과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을까? 속 시원하게 정리해 줄 지침서가 있었으면 했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는 이런 궁금증에 갈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책이다.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기 때문이다.

저자 류현모, 강애리 부부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분들이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여정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첫 작업으로 이들 부부와 딸이 함께 참여하여 <충돌하는 세계관>(원저 Understanding the Times)을 번역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 식자층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충돌하는 세계관> 안에는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저자들을 통해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 담긴 방대한 지식을 맛나게 요리하고 먹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진행하신 두 번째 작업이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로 이

어졌다.

이 책이 가진 특징은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탄탄한 지식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지식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부 '시대 직시'에서는 24시간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2부 '시대 통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타종교인의 교리와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 또한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준다.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고 있는 이슬람 세계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의 특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보다 어떻게 우월한지 알게 해 준다. 모든 세계관은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 인간사회에 전달된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류현모 · 강애리 / 두란노 / 2021



3부 '시대 분별'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10개 학문, 즉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이 담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별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이 된다.

참지식은 생각을 바꾸고 각성시켜 삶을 통해 자신이 확신하는 세계관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4부 '시대돌파'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문제들, 즉 성, 생명, 가정,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 교육 등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믿는 자로서 삶과 신앙과 지식이 일치하는 삶으로 시대를 돌파하고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결단하게 해 준다.

저자들은 각 주제마다 '중심 성경구절', '적용과 토론', '기도' 등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소그룹 공부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책을 읽을 때에도 1. 책을 정독하고 요약하고 2. 중심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것을 권하고 있다. 3.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리스트를 작성하여 4.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라고 제안한다. 5.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해당 주제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통전적인 가르침을 찾아보

고 6. 깨달은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깨달은 세계관을 자신의 삶에 도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52개의 주제를 공부해 가다가 보면 햇빛에 비친 먼지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물들었던 세속적 세계관이 환히 드러나게 된다. 다양한 세계관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지 알아가게 한다. 험난한 인생의 순례길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능력을 얻게 해 준다. 각 주제를 마칠 때마다 각성된 믿음과 확신으로 시대를 돌파하는 자신감을 붙여 넣어준다. 시대를 깨우는 감동적이고 지적인 성령의 사역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진행하실 다음 계획들이 기대하게 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명진

이비인후과 개원의이자 의사평론가로서 의료윤리와 생명윤리 관련 활동과 강연, 칼럼 기고,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과 행동하는 프라이프 공동대표,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오민용 (스마트스디지탈경제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 법학박사)

현대 인간 사회가 있는 곳에는 늘 법이 있다. 법은 다원주의 시대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조건이자, 다른 신념을 지닌 이들이 서로 공통된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매개체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분배받는 정당화된 근거이다. 동시에 법은 서로 다른 이들이 합의하여 세운 기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내용적 타당성, 형식적 합법성을 지니는 사회구조의 뼈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은 1988년 10월 탈옥범 지강현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란 강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다”라는 말로 상징되듯이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

한국은 2014년 OECD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서 27%를 차지하여 덴마크 83%, 독일 67%, 미국 59%, 멕시코 39%를 보여준 평균 54%에 크게 못미쳤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은 불공정하고 부정한 사법 시스템이 존속되는 것에서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 하나는 고용된 총잡이로서, 즉 부정한 사법 시스템 속에서 욕망과 돈을 좇아 살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이웃에게 해악을 함께 미치는 삶이다.¹⁾ 다른 하나는 보냄받은 제자로서 부정한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화평케 하는 중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²⁾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 중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현재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사용되는 시간의 총량을 근거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변명이 아니라 입증이 중요하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용된 총잡이로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신의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하나님에게만 사로잡혀 사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 누구나 이 둘 사이, 즉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와 법〉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로서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 법률가의 삶을 살아오셨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생활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직면하는 현실적 갈등들을 함께 고민하며 나뉘는 성경적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독교법률가회에서 나눈 발표와 토론, 인문학 서평 사이트 아포리아 및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좋은 나무〉 등에 기고한 법과 신앙에 관한 글의 모음이다(23면). 저자는 집필의 목적을 그리스도인 법률가라면 한

1)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눅11:52, 새번역)

2)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태5:9, 새번역)

〈기독교와 법〉 이병주 / 대장간 / 2021



번쯤 고민했을 법과 신앙의 관계에 관련된 물음과 답변을 함께 풀어 보자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22면).

특별히 이 책은 저자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법 관련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고민을 자신의 신앙고백을 통해 다시 점검하며, 세상 속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중 정체성이 한 인격 속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두 역할의 긴장 속에서 풀어내려 한다. 저자는 이를 위하여 헌법, 민사재판, 민법, 형사재판, 파산 회생법 등을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범한 말로 풀어놓는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서 저자가 그리스도인 제자도와 그 도를 앞서 걸어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법과 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민했는지, 그 생생한 열정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그리스도인 법률가로 사는 방식으로 형사재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설 것을 제시하고, 피고소인이나 피의자나 의뢰인을 이웃 사랑의 대상으로 대우할 것을 제시하며, 법률가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자기 부인을 제시한다(135면). 우리는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률가라는 직업윤리와 부단히 통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법률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오래되고 일관된 고뇌의 숨결도 함께 느낄 수 있다.

한 가지 작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은 필자가 보기에 저자의 짧은 단상과 묵상의 글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나 기존 개념어의 의미 지평과 법 및 법이론 이해가 다소 주관적 관점에서 머문 경우도 간혹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책이 학술서가 아닌 관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필자는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 벼테랑 그리스도인 법률가가 고민했던 점들을 함께 숙고해 나가며, 자신의 삶에서 중첩되는 고민을 해소하는 도움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저자는 우선 자신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자 법률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마틴 루터는 “진정한 법률가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듯이 법률가들은 그리스도인의 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다. 필자는 이 문장이 “진정한 법률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듯이 법률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친구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로 이 땅에 다시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오민용

스마트스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원이자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이다. 한동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감리교신학대에서 목회학석사(M.Div.), 고려대에서 법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법철학, 자연법, 법신학, 기초법 및 형사법이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있다. 청파감리교회 청년이다.

청년들을 위한 프랑스식 기독교 세계관 교재

유경상 (CTC 대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두 저자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를 더는 회피하지 않는 도전을 하게 한다. 이러한 호소는 두 가지 안타까움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주제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된 생각을 토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며,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저자들의 공통된 경험에서 비롯된다. 두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르쳐 왔다. 이러한 경험이 기독교 세계관의 열정과 청년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져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그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모두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뤼(Jacques Ellul) 사상을 연구해 온 전문가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크 엘뤼의 통찰력을 토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성경적 관점을 고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처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 자크 엘뤼에 대한 두 저자의 공통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쓴 것이다. 이 책이 지닌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 책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내포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수많은 진리(truths) 중 하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진리(the Truth)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게 해서 안 되며, 더 나아가 공적인 영역에서도 변함없는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 목적과는 달리, 이론에만 머물러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을 지향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이나 원리 대신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직면할 다양한 주제들(앞으로 출간될 2권까지 포함하면 총 30개의 주제)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총론이 아닌 각론이다.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의 각론으로서, 오늘날 세상에서 직면하는 이슈들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지침서이다. 저자들은 청년의 때야말로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하고, 부르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 박동열 · 이상민 / 고북이 / 2021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각 주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지만, 각 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주제마다 ‘생각 열기’, ‘생각하기’, ‘생각 나누기’로 구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토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가도록 했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경청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은 채, 정답만을 제시하며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 끈대가 되기 쉽다. 저자들은 교육자답게 정답보다는 생각 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안내했다는 점은 이 책이 지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프랑스식 기독교 세계관 교재’이다. 이 표현은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신국원 교수의 말을 빌린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관 도서들은 네덜란드와 영미 저자들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각 주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모색하는데 자크 엘월의 통찰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자크 엘월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로 불리듯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더불어 이에 대한 성경적, 윤리적 고찰을 시도한 통합적 사상이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현시대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성, 혼란, 불안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자크 엘월의 통찰력, 특히 기술주의에 대한 탁월한 비판과 성경적 대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목회, 레지스탕스 참여, 부시장 역임, 청소년 예방 범죄 클럽 운영, 환경보호 투쟁 가담 등 자크 엘월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은 그가 단순히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활동가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지침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자크 엘월의 사상과 활동은 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소통과 토론을 통해 현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적 관점과 지침을 함께 모색해 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유경상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대표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인생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다. 경북대학교 철학과(B.A.),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백석대학교 박사과정(Ph.D., 기독교철학)을 졸업했다. 2007년 CTC를 설립하였으며,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수많은 지역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시리아 난민 사역의 열매

고성준 (수원하나교회 담임목사)



2009년, 수원하나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담당하던 전도사 부부가 시리아 선교사로 헌신했다. 악명높은 중동지역인지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믿음으로 축복하며 파송했다. 2년 뒤, 시리아에는 내전이 발생했고, 우리 팀은 난민이 되어 택시를 잡아타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서 국경을 넘게 되었다. 요르단에 넘어온 선교사들은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이모저모로 돕기 시작했다. 필요한 음식도 가져다주고, 추위를 덜어줄 담요도 챙겨다 주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시리아에서는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던 이들이, 요르단에 넘어오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팀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난민들을 섬겼던 모든 선교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 이곳에 추수가 시작되었구나!” 그렇다. 중동에 추수가 시작되었다. 지난 1,400년 이슬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난민들 사이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놀라운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것 같다.

첫째, 난민이 되면서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 가난해진 마음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둘째, 주위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다. 시리아에 살 때는 믿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의 눈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이슬람은 움마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감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난민이 되면서 움마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셋째,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다. 무슬림은 모두 형제라는 말을 믿고 요르단과 레바논으로 건너왔건만, 형제는 무슨! 찬밥신세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꾸준히 찾아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찾아와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뿐이었다. 이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된 이유다. 복음은 사랑이다. 지금도 레바논 난민거주지 옆에 세워진 센터에는 아침부터 아이들이 북적인다. 이들에게는 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감옥 같은 난민촌을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금도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다. **FAITH & LIFE**

수원하나교회 사역자 소감문

어머니의 날

동틀 무렵 모스크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잔(이슬람 기도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를 시작으로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합니다. 이들은 신앙을 넘어선 가족공동체로 많은 아이를 낳으며 가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문화 가운데 주님께에서 선택하신 열쇠가 바로 난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난민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 작은 지역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봉사하고 있는 한 시의 금요 스쿨에는 매주 80명, 많게는 9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이곳으로 이주해 온 난민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하는 아이도 있고, 지루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일학교와 비슷한 풍경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의 주일학교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난민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아이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슬람 국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작은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금요 스쿨에 나오는 난민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의 어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어머니들을 보며,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아이가 집에서 너희 얘기를 많이 했으며,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 시간, 한 어머니께서 볼에 침이 묻을 정도로 진하게 입 맞추며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 '음바와쎄'(볼에 입맞춤 하는 이슬람식 인사)에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머니들 역시 느끼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에게도 그분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글쓴이 이라임

수원하나교회 시리아 난민 선교사

생명 돌봄은 지상명령이다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동역회 이사장)

생명 살림과 돌봄은 성경의 대주제이다. 하지만 그것은 신학과 목회에서 자주 영혼 돌봄으로만 축소되곤 했다. '코로나 19' 사태는 전인적 생명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치는 계기를 주었다.

1. 생명의 창조와 완성을 향한 돌봄 :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다(창 1:28). 그리고 세상을 가꾸고 돌보라는 소명도 주셨다(창 2:15). 안타깝게도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병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도 생명 살림과 돌봄이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0:10). 영혼과 교회만이 아니다. 창조 전체의 생명을 회복하시러 오셨다. 교회는 그 사실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의 온전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2. '코로나 19' 팬데믹과 교회의 개혁 : 우리는 기독교가 오늘의 생태 위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이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갖게 된 것은 주님의 계획일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에도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분석과 이른바 '뉴노멀'에 대한 예측이 맞는다면, 할 일은 분명하다. 교회는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한다. 특히 근래에

부상한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 갱신을 넘어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부에선 현 상황을 '교회 와해'로 보는 격한 진단도 있다. 구조적 조정이나 갱신 또는 부흥 운동으로는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생명 돌봄'과 뉴노멀 시대의 선교적 사명 : '생명 돌봄'은 '사림과섬김' 모임에서 논의한 의제 중 늘 우선적인 관심 사안이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생명 돌보는 교회와 생명 살리는 목회로의 회심'을 주제로 꼽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생명 돌봄'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더 미루거나 피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가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Salvation Means Healed Creation)에서 도전한 “병든 지구에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핵심을 찌른다. '코로나 19'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포럼은 전문가와 목회자가 함께 '생명 돌봄'으로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상황은 '생명 돌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요청한다. **FAITH & LIFE**

* 이 글은 '사림과섬김'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생명돌봄포럼'(2020.10.26, 만나교회 & 온라인)의 기조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며, 전체 자료와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생명돌봄포럼'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지난 10월 30일(토) ‘메타버스 시대의 의사소통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현장과 온라인(Zoom & 유튜브)에서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오전 10:00~12:00) : 최태연 교수(백석대 기독교철학)의 사회로 5개 대학교의 다양한 전공자의 발표와 참관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새로남청년우수논문상은 이준봉(서울신대 목회학 석사과정)의 “메타버스 시대의 기독교 공연예술”이 선정되어 상금(50만 원)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대학원생부 발표

개회식(오후 1:00~1:30) : 오민용 박사(기학연 총무, 스마투스디지털연구원 연구원)의 사회, 박문식 교수(기학연 학회장, 한남대 기계공학과)의 개회인사, 홍종인 교수(서울대 기독교수회 대표)의 환영사와 기도, 신국원 박사(동역회 이사장)의 축사, 새로남청년우수논문상 시상식, 김대인 교수(연구부학회 회장, 이화여대 로스쿨)의 ‘연구윤리교육’ 순서로 이어졌다.



개회식: 홍종인, 신국원, 박문식(왼쪽부터)

주제강연 및 질의 문답(오후 1:30~3:30) : 김철수 교수(기획부학회 회장,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권오병 교수(경희대 경영학과)의 “메타버스의 현황과 전망”, 김용찬 교수(연세대 언론정보학부)의 “미디어 환경과 ‘메타버스’ 소동”, 문상철 원장(카리스교차문화연구원)의 “Z세대 세계관 이해와 메타버스 시대 교회와 선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강연: 김용찬교수(연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일반부 논문 발표회(오후 3:30~6:00) : 경제/경영, 공학/과학, 사회과학, 세계관(I, II), 신학, 젠더 이데올로기, 철학/인문학, 공연예술 모두 9개 분과에서 총 36편의 논문 발표와 열띤 논찬 토론이 있었다.



주제강연자 전체: 문상철, 권오병, 김용찬, 김철수(왼쪽부터)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 9+10월호 | 특집: '2030세대'에 대하여

- '코로나 19' 시대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둔 것처럼 느껴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애쓰고 노력하는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다시 코람데오' 기회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 고경희(솔라피데수어통역연구소 대표)
-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글을 보며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2030 세대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사역자분들을 응원하고 중보기도 하겠다. - 김광태(연세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은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는 세대가 있다. MZ 세대이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자양분이 될 세대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요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부분이다. 그 통찰을 추태화(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의 '그 스승에 그 제자, MZ 세대에게'라는 글을 통해서 얻게 된다. 마치 진흙 속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을 얻게 되었다. - 김경진(일산 성광침례교회 교육목사)
- 김현아(기윤실 사무국장, 청년활동가)의 글 중 "교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을 논하지 말라. '청년의 오늘'을 위해 교회를 바꾸라"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 더불어 현존하는 미래인 2030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이번 호를 통해 배울 수 있어 참 좋았다. - 김종철(CCC 전임 간사 / 합동신학대학원 재학 중)
- '코로나 19'로 인해 떠밀려 도착한 새로운 신대륙 메타버스 세계! 그곳의 원주민인 2030 세대와의 소통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운다면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 김태운(서울 한주교회 담임목사)
- 미디어 지면은 MZ 세대를 아트페어에서 머뭇거림 없이 지갑을 여는 세대로 묘사한다. 인터넷에서 '알바천국'을 뒤져야 하는 세대도 MZ 세대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문명 구조의 문제이고, 실업이 '루저' 취급을 받는 것은 사회 인식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를 복음적 시각으로 보는 올바른고 도전적인 관점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에 직면해 있다. 주어진 사명이 크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심상용(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 서울대 미술관 관장)
-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교회는 언어가 회귀하려 할 하천과 같았다. 하지만 교회는 돌아오는 언어를 환영하지 않고 좁다란 어도만으로 들어오라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에게 교회가 2030 세대에 넓은 바다가 되어주고 회귀할 수 있는 하천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 오지석(충실대 철학과 교수)
- 2030 세대를 다룬 다양한 글들은, 모든 것이 빠른 이 시대에, 잠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기를 요청한다. 희망을 찾는 MZ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회가 아들람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그 희망의 싹이,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의 조화를 위해 진실로 속고하는 이곳에서 움트기 시작할 것을 믿으며 기대한다. - 양승규(서울신대 신학대학원 재학 중)
-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청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 정광희(한겨레노사법률원 대표, 법학박사)
- 최근 새롭게 입사하는 2030 세대를 보며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신앙과 삶>의 주제가 2030 세대에 대한 것이어서 관심 있게 읽게 되었다. 소크라테스 때에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기득권 비슷하게 되어버린 나의 의식 속에도 요새 젊은이들은 참 우리 때와 다름을 입버릇처럼 되뇌는 경우가 늘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김성희 소장님의 글에서 다르지만 함께 가야하는 세대이기에 그들을 더 깊이 품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 최정민(G샘 병원 과장)

2021년 제2차 이사회 개최

일시: 2021년 9월 27일(월) 7:30~8:00 pm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정관 개정 건(국세청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요건) 및 웨슬리 선교사 귀화 추진 건

참석: 10명 이사 중 7명 출석

2021년 임시 총회 개최(Zoom 회의)

일시: 2021년 9월 27일(월) 8:00~8:45 pm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정관 개정 건(국세청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요건) 및 웨슬리 선교사 귀화 추진 건

참석: 27명 대의원 중 21명 출석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관 변경

2021년 10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정관 변경을 허가받음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 (26권 3호, 9월 30일 발간)

이윤희(한국외국어대 언어연구소/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 교수)의 논문 등 총 7편의 논문 게재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개최(온·오프라인)

주제: 메타버스 시대의 의사소통과 기독교

일시 & 장소: 2021.10.30.(토), 서울대 사범대(10-1, D-Space)

주제강연: 권오병 교수(경희대), 김용찬 교수(연세대), 문상철 원장(카리스교차문화학연구원)

- 교수/일반부 발표: 10개 분과(온라인: 9개, 현장: 1개) & 대학원생 발표: 1개(5개 대학)
- 대학원생 '새로남침년우수논문상' 수상자: 이준봉(서울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깨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권오병(경희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번역가),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신앙과 학문> 편집 위 원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하반기(비대면)에 '어린이세계관캠프', '아빠들과 함께하는 부모학교', '부모세계관학교 - 원리편',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기독교세계관으로 나니아 연대기 읽기'를 잘 마무리했다. 다음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수업 - **부모교사세계관학교** : <실제편>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으로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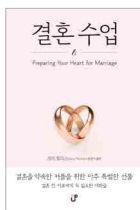
*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www.ctcworldview.com)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해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1. 신간 및 개정판 소개



《결혼 수업》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양장본 264쪽 | 16,000원 | CUP

결혼을 약속한 커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 결혼 전 서로에게 꼭 필요한 대화들

"결혼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관계 전문가 게리 토마스와 함께하는 결혼수업 30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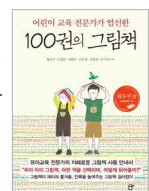
《거룩의 영성》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440쪽 | 18,000원 | CUP

게리 토마스의 일상영성 04

이 책은 도덕주의적 차원의 신앙의 범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준다.

2. ZOOM 북토크 - [저자와 함께하는 그림책 활용 수업]

11월 25일 저녁 8시 <어린이 교육 전문가가 엄선한 100권의 그림책> 저자 중 김정준 교수님(충신대 유아교육과)의 강의로 북토크가 진행되었다. 성경적 관점으로 그림책을 선별하고 분별하는 법, 그림책의 유익과 읽어주는 방법 등 참석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1년 9월, 10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7월	2021년 8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7월	2021년 8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470,000	1,0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920,000	4,920,000
	임원회비	1,200,000	530,000		기타급여	1,000,000	400,000
	일반회비	4,453,500	4,588,500		소계	5,920,000	5,320,000
	기관후원금	2,850,000	2,7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16,538	360,77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210,870	171,33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3,980	8,580
	VIEW후원금	1,090,000	1,490,000		소모품비	3,000	18,88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24,000
	월보구독료	339,000	344,000		식비	288,000	290,0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610,040	787,920
	기타	140,000	140,000		퇴직연금	394,510	394,510
					회계용역비	110,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141,800	77,000
					기타(지급수수료)	449,810	143,966
	소계	10,912,252	11,159,500		소계	3,478,548	3,181,956
기타수입	일반이자	4,992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291,145	1,080,87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350,870	1,140,59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1,313,944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10,48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260,000
	예수금	376,380	361,460		소계	1,842,429	1,196,800
				기타	세금	39,650	52,050
	소계	381,372	361,460		잡비	300	800
					소계	39,950	52,85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400,00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소계	400,00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70,000	17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1,340,000
	학회행사수입	970,000	1,16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443,15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2,442,289
	학술지게재료	3,120,000	0		학술지발송비	0	588,430
	저작권료	1,658,801	0		학술지심사료	0	820,000
	학회기타수입	300,000	1,000,00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	250,000	193,900
	소계	6,218,801	2,330,000		소계	250,000	5,827,769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1,024,410	916,17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916,170	1,059,795
	전월 이니시스 입금	80,000	5,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5,000	0
	소계	1,104,410	921,170		소계	921,170	1,059,795
당월 수입액		18,307,083	14,585,130	당월 지출액		12,360,538	18,767,389
전월 이월액		31,376,165	37,322,710	차월 이월액 (잔액)		37,322,710	33,140,451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1년 9월)

3천 김성권, **3천5백** 김동현, 김선헌,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철, 윤종선,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찬수,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규,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남진, 김노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욱, 김선헌,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성,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경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홍섭,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근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인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송창민, 송하은, 송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엄정욱,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관,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다나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경,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운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훈, 이주은, 이준식,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혜옥,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전항록, 정다은, 정대용,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래, 정재섭, 정정숙,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춘,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철,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식,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섭,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김욱, 나용근, 석종준,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서정우,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강병덕, 김민철, 서미경, **70만** 박동열,

계 7,732,5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새연약교회, 서로서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동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서울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도교회, **15만** 일원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2,900,000원

전체 10,632,500원

회원후원

(2021년 10월)

3천 김성권, **3천5백** 김동현, 김선헌,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철, 윤종선,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찬수,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규,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남진, 김노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욱, 김선헌,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성,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재환, 김경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홍섭,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근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인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송창민, 송하은, 송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엄정욱,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관,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다나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경,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운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훈, 이주은, 이준식,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정다은, 정대용,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래, 정재섭,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춘,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철,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식,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임재광,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박은호, 석종준, 전병국,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이형직,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강상우, 김민철, 김성원, 김성진, **30만** 손정원, **60만** 정희영,

계 8,402,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서로서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동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서울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도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2,600,000원

전체 11,002,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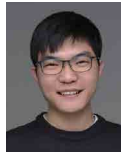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회원가입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유 기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의 일상영성 04

거룩의 영성

The Beautiful Fight

게리 토마스 Gary Thomas

윤종석 옮김

무선 440쪽

값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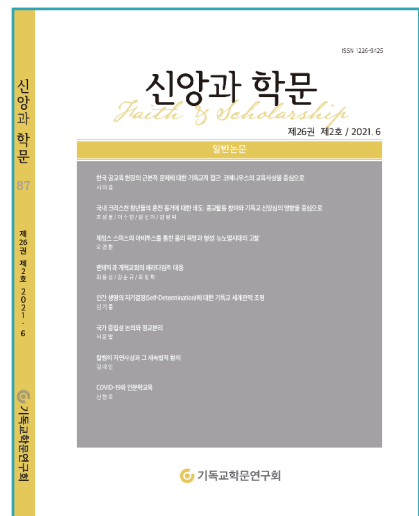
목마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작!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을 불어 넣어
매력 있는 기독교를 회복하자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투고안내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신학과 학제간의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 ◆ 202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상세안내**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 '학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 **일반 문의** : gihakyun@daum.net (사무국, 학회)
- **신앙과 학문 문의** :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